



본 뉴스레터는 경영컨설팅학과와 지식서비스 연구소의 정보 공유와 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발행처 : 경영컨설팅학과 / 지식서비스연구소

경영컨설팅학과 지식서비스연구소 IKS 행사안내

교수님 말씀



김준용 교수님의
인사 말씀

경영컨설팅학과 주요 행사

- 2013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경영컨설팅학과 후기 학위수여식
- 2013년 후기 신입생 OJT

2013년도 후기신입생 소개

석사과정 풀타임 신입생 소개
-김현민, 노강수, 박세준, 이권우-



지식서비스 연구소 안내

경영컨설팅학과 홈페이지 및
FACEBOOK 소개



재학생들의 근황

- 2013-여름학기 KOTRA해외인턴 후기 : 두바이, 호치민, 마닐라, 프놈펜
- 재학생 인터뷰 - 석사과정 4기 강민구, 이한웅



경영컨설팅학과 김준용 교수님 말씀



한양대 경영컨설팅학과 교수님 및 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용입니다.

저는 지난해 2학기에 한양대학교로 부임하였고 경영컨설팅학과와 인연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학과의 발전을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연구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강의를 통해 만난 원우분들의 진지하고 탐구적인 모습을 보면서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가 왜 국내 경영컨설팅학과 중에서 최우수 학과로 꼽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과 설립 이후 그리 길지 않은 기간 안에 이렇게 훌륭한 학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학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많은 교수님들과 원우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경영컨설팅학과와 소중한 인연을 맺을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겠다는 다짐도 이 기회를 빌어 되새겨 봅니다.

경영컨설팅이라는 분야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역사도 일천하고 변화도 빠른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학과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 및 지원과 보다 질 높은 연구와 교육을 위한 교수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학과의 주인인 원우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학생 여러분의 학업과 연구에 임하시는 진지한 태도, 학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 동문들과 학과 간의 끈끈한 유대와 소통이야말로 학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우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해 오셨듯이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과 학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의 끝자락을 건강하게 나시고, 즐겁고 활기차게 새 학기를 맞이하셔서 학업에서나 하시는 일에서나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교수 김 준 용

2013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3년 8월 14일 수요일, 후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다. 경영컨설팅학과 오리엔테이션은 경영컨설팅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학과 내규, 2학기 수강신청 안내로 진행되었으며, 2013년도 후기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후기 신입생들이 경영컨설팅학과에 애정을 갖고 앞으로 학업에 충실히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현재 경영컨설팅학과 학과장이신 황승준 교수님과 지식서비스 연구소의 윤은주 선생님의 친절한 안내로 진행이 되었다. 또한 지식서비스 연구소 연구원, 재학생들의 참여도 높았다.

공식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에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각 신입생들의 소개와 더불어 첫 학기를 시작하는 신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재학생들의 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학과 내규 및 수강신청 안내 문의 전화는 다음과 같다.

학과사무실 : 031-400-5036



경영컨설팅학과 후기 학위수여식

지난 8월 16일, 한양대학교 행당캠퍼스에서 대학원 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1097명 학사학위를, 906명 석사학위를, 196명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임덕호 총장과 그 외 학과장들이 참석하였으며, 그 외 많은 귀빈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하였다.

한양대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는 총 5명이 졸업하였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뜻 깊은 배움을 쌓아온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그 배움을 나누고 자신의 꿈을 널리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 졸업자(박사) 명단 : 주시각
- 졸업자(석사) 명단 : 김영미, 김태형, 우리라, 최소연

박사학위 - 주시각



석사학위 - 김영미



석사학위 - 김태형



석사학위 - 우리라



석사학위 - 최소연



2013년 후기 신입생 OJT

2013년 8월 26일, 경영컨설팅학과 후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OJT를 실시하였다. 26일 첫날에는 신입생들의 소개와 앞으로의 일정, 공부할 HBR(하버드비즈니스리뷰) 주제 및 그 외 발표할 내용들을 설명하고 팀을 편성하였다. 또한 석사과정 2기부터 4기까지의 선배들도 참여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하였으며 선후배간의 친목과 다양한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되었다.

경영컨설팅학과 OJT는 주로 경제경영월간지 HBR(하버드비즈니스리뷰)를 통해 경영관련 이슈의 학습 및 토론에 의의를 둔다. 또한, 영어 Article을 다룸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한다. 이번 OJT는 2013년도 전기에 입학한 재학생들의 주최로 진행이 되며, 앞으로 신입생들에게 경영컨설턴트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후기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석사과정 2기부터 4기까지의 참여를 통해서 깊이 있는 학문적인 공유가 되어 서로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다.



2013년도 후기 신입생 OJT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행사개요

가. 장소: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나. 기간: 2013년 8월 26일 (월)~ 9월 13일(금) 3주 / 13:00-15:00 (2시간)

다. 차수: 총 6회차 주당 2회 (준비일자 포함)



2013년 후기 신입생 OJT

가. 주차별 일정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
| 1주차 | 8/26 | 8/27 | 8/28 | 8/29 | 8/30 |
| | 준비일자 | | | 1회차 | |
| 2주차 | 9/2 | 9/3 | 9/4 | 9/5 | 9/6 |
| | 2회차 | | | 3회차 | |
| 3주차 | 9/9 | 9/10 | 9/11 | 9/12 | 9/13 |
| | 4회차 | | | 5회차 |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회차별 일정

| 회 차 | | 일 정 |
|------|----|---|
| 준비일자 | |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소개 및 발표팀 편성안내, OJT소개, 연락처 공유 |
| 1회차 | 1부 | OJT설명 및 일정확인, 학과 선배님 소개, 신입생 대상 SWOT분석 발표 |
| | 2부 | HBR 선배 예시, 논문 검색방법, 경영자료분석 설명 |
| 2회차 | 1부 | HBR발표 및 토론 |
| | 2부 | 컨설팅관련 |
| 3회차 | 1부 | HBR발표 및 토론 |
| | 2부 | 경영자료분석 중간평가 |
| 4회차 | 1부 | HBR 발표 및 토론 |
| | 2부 | 컨설팅 관련 과제발표 및 토론 |
| 5회차 | 1부 | HBR발표 및 토론 |
| | 2부 | 경영자료분석 발표 |

*발표는 1인 1회씩 발표기회가 모두 가도록 구성



2013 후기 신입생 소개



석사과정 1기 김현민

안녕하세요. 이번 한양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에 입학하게 된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학부 과정은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유통과 물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학부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부과정을 보내면서, 의류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을 병행했었습니다. 직접 제작도 했고, 온, 오프라인으로 유통과정을 거쳐 판매도 해왔으며, 현재는 병행수입을 통해, 외국브랜드제품을 국내에서 팔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키워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석사과정을 통해 학부과정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계획적인 학업을 하여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자 합니다!



석사과정 1기 노강수

안녕하세요. 2013년 가을학기에 입학하는 신입생 노강수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10개월 정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턴으로써 서비스업 대상 '산업재해 컨설팅'을 보조 업무를 통해 컨설팅업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을 하면서 지식을 전수하는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참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찾던 중 한양대 경영컨설팅대학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합격을 하게 되어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어 입학 앞둔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학부과정은 법학을 전공했었던 터라 전공 특성상 혼자 공부하였고, 이해한 것을 암기하여 답안지에 산출하는 훈련을 주로 하였습니다. 즉, 여럿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을 요하는 공부를 거의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태껏 공부하지 않았던 '경영' 과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분야와 잦은 발표와 협동과제가 있는 대학원 생활이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로운 것을 배워 지식의 범위를 확장 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되고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많이 깨닫고 배우고 싶습니다.

한양대 경영컨설팅대학원은 저에게 변화입니다. 인생의 긴 항로에 있어 2년 대학원 과정은 훌륭한 컨설턴트로 도약할 수 있는 믿음직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2013 후기 신입생 소개



석사과정 1기 박세준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했다가 이번 학기에 복학하게 된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익숙할 것 같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얼마나 깊이 배울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섭니다. 평소에는 작은 일에도 많은 고민을 하지만, 막상 크고 중요한 일은 쉽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원을 진학 결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기술혁신 분야이고, 특히 ICT가 시청각 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 입니다. 아직 활발하지 않은 분야여서 힘들 것 같지만 좋아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컨설팅 기법이나 관련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청각 산업에 대한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 힘든 날도 많겠지만 동기, 선배님들을 보며 많이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사과정 1기 이권우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선배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경영컨설팅학과 석사과정 1기 이권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조그마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작은 기업체라도 어떠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기업이다 보니 주먹구구식 경영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내가 경영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중소기업 컨설팅이란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경영학에 관심이 생겨서 경영학부로 진학하게 되었고, 한창희 교수님 수업을 들으며 MIS 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IT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IT쪽의 사업모델을 공부해서 수익 모델을 찾고, 신사업은 어떤 분야가 있는지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 뭔가 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입학하게 된 새내기입니다. 선배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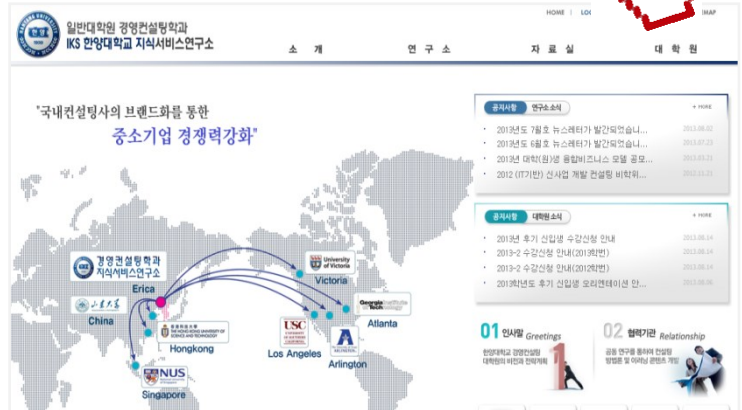
앞으로 2년!! 대학원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영컨설팅학과 홈페이지 및 FACEBOOK 소개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는 지식서비스연구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통해 재학생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학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는 8월 중 홈페이지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정보 공유와 풍성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페이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 연구소 홈페이지 : iks.hanyang.ac.kr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FACEBOOK :
www.facebook.com/mchyu



지식서비스연구소
Institute of Knowledge Services

(426-791)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로
55 학연산 클러스터 105호

경영컨설팅학과 FACEBOOK 이야기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FACEBOOK : www.facebook.com/mchyu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FACEBOOK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8월 2일 쉼

2013년 8월 2일 오후 5:37
답이 없을 것 같은 문제의 해결은
익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3명이 좋아합니다.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님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8월 15일 쉼

경영컨설팅이란 무엇일까요?
그 시작과 그 특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종종 이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경영컨설팅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블로그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bit.ly/15EwTkX



Jungkiu Choi's Blog: 컨설팅이란 무엇인가?
bit.ly

컨설팅사 (McKinsey)와 인터넷서날 은행 (Standard Chartered Bank)에서 전략, 운영, 인수 합병, 투자, 성과 개선, 리더십을 경험. 서울, 뉴욕, 상해, 도쿄도, 싱가포르에서 근무. 서울대 행정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1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8월 22일 쉼

[경영컨설팅] #2

경영컨설팅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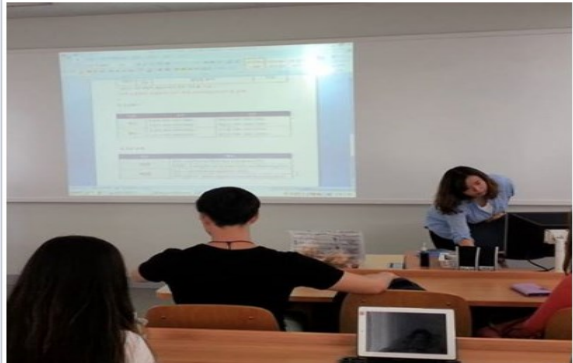
사실 조건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관점에서 봤을때 컨설팅의 시작은 실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봐도무방할 정도입니다.

경영컨설팅은 경영상의 경험들을 일반화,구조화 시키는 과정이 비교적 발전했을때 나타날 수 있는 고도화된 산업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조직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 발견되고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운영·통제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거나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만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과학적 관리'가 탄생한 19세기 후반까지도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관리의 선구자인 Frederic W. Taylor는 과학적 관리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연을 개최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책과 논문을 저술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업인들에게 머드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5시간 전 쉼

2013 후기 OJT (사진: 4장)
2013년 후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OJT(On the job training)을 진행했습니다.
아직은 서둘러 각자의 학업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3-여름학기 KOTRA해외인턴 후기

- 두바이 무역관 : 석사과정 3기 김진하



한선희 본부장님과 함께
아부다비 '그랜드 모스크' 이슬람 사원
2013. 7. 29.

안녕하세요? 경영컨설팅학과, 3기 김진하입니다. KOTRA 두바이 무역관에서 한 달 간의 인턴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바이 무역관은 중동 본부를 겸하고 있기에 더욱 폭 넓은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 됩니다.

두바이 도착 후, 다음날 아침 바로 출근을 하고 업무와 자리 배정을 받은 뒤 바로 업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조사 업무를 주로 맡았고, 각각 RIS 해외 시장 조사와 유통MAP 조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총 8개의 분야(의류, 식품, 가전, 레저용품, 생활 잡화, 의료 기계, 화장품 등)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여성 의류와 패션 산업 분야였고, 생각보다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광산에서 보석을 캐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 결과, 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겠지만, 조금이라도 두바이에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와 무역업 종사자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사 업무를 통해 UAE 경제 동향부터 정치, 사회, 무역 제도, 문화 등을 이해 할 수 있었기에 단기간 인턴이었던 저는 많은 것을 습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바이 무역관 해외 인턴의 최대 장점은 '해당 분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 경험이 부족 했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 작성 요령 부터 실제 바이어 미팅 및 인터뷰, 현지인 대상의 설문 조사까지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가장 실무 다운 실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내에서의 의사소통뿐 만 아니라 고객들과의 의사소통, 글로벌화 시대에 걸 맞는 외국인 바이어와의 의사소통까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총 네 번의 현지 바이어들과 미팅을 가졌는데, 그 바이어들은 모두 현지에서 오래되고 규모가 큰 기업의 사장님들과 회장님이었습니다. 인터뷰 외에도 한국 기업을 위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그 모습을 통해 잠시나마 CEO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13-여름학기 KOTRA해외인턴 후기

- 두바이 무역관 : 석사과정 3기 김진하

해외에서 지내는 만큼,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현지 관광도 시간 틈틈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영컨설팅학과 선배님이신 한선희 본부장님께서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전망대뿐 만 아니라, 아부다비의 그랜드 모스크, 페라리 월드, 왕의 소유인 팰리스 호텔까지 관광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부다비는 UAE의 수도로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하고 현대적인 두바이와는 달리, 아부다비는 이슬람 종교적 문화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보다 전통적이고 매우 보수적인 곳이었습니다.

KOTRA 두바이 무역관 인턴을 하면서 일도 열심히 했지만, 그만큼 시간 틈틈이 관광도 하면서 어떤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1달을 세 달처럼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한선희 본부장님을 필두로 다른 현지 직원 분들, 특히 직속 상사이셨던 손주홍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생활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시고 지도해주셨기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기간 중에 생일을 맞이하였는데, 함께 갔던 김준현 원우와 정용운 원우, 손 과장님과 다른 대리님들, 한선희 본부장님께서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사주셔서 외롭지 않은 생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단기 인턴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영어 능력이었는데,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결심하고 굳은 의지로 영어공부를 제대로 해보고자 영어회화 강의 수강은 물론, 공인영어점수를 위해 토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날, 손주홍 과장님께서 따로 제게 해주신 말이 생각납니다. "이제 시작이다". 인턴근무는 제게 또 다른 시작과 도전을 선물 해주었고, 이런 큰 기회를 주신 한선희 본부장님과 경영컨설팅학과 교수님들, 행정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여름학기 KOTRA해외인턴 후기

-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 석사과정 2기 방지영



안녕하세요. 호치민 무역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돌아온 석사2기 방지영입니다.
처음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여 시내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낮선 풍경과 소음에 어리둥절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면서 바라본 택시 밖의 풍경은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호치민 무역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가 아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배울 점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호치민에서 열릴 예정이거나 이미 열렸던 유아용품 관련 전시회 조사 업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고 보니 베이비 페어와 같이 유아 관련 전문 전시회가 베트남에서 개최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작년에 열렸던 해피 키즈 페어는 올해 다시 개최된다는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지만, 호치민에서 개최된 전시회를 찾는 과정에서 유아용품 전시회와 대조적으로 공업과 기계관련 전시회가 호치민에서 주로 열린 것을 알게 되었고, 베트남은 아직까지 생활 관련 분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이번 인턴생활을 통해 제가 깨달은 또 다른 하나는 언어는 소통하는데 있어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베트남어를 전혀 못했지만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었고,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사람이 소통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요소일 뿐, 필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인턴 기간 동안 무역관에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많은 추억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도 계속되었음 합니다.

2013-여름학기 KOTRA해외인턴 후기

- 필리핀 마닐라 무역관 : 석사과정 3기 천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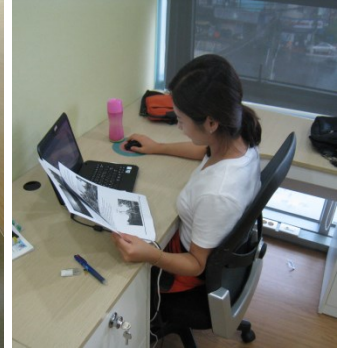
KOTRA 필리핀 마닐라무역관의 인턴십이 2013년 8월 26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한국귀국 전날에 후기를 남기게 되었네요. 짧은 인턴기간 동안 이런저런 경험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닐까 합니다. 본사 직원분들, 현지 직원분들, 업체분들, 학부생 인턴 등 다양한 직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좀 더 삶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으니깐요. (한달여 일하는 동안 총 40명 정도를 만난 것 같네요.)

필리핀 무역관의 조직 파트 중 현지시장조사, 지사화의 업무의 일부분을 잠깐이나마 도와드리면서, 필리핀의 자국민보호에 따른 지사화의 어려움, 역사, 특수한 환경, 언어 등의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컨설팅은 한국과 달리 서류대행의 의미로써, 전문직종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만약 필리핀 내에서 컨설팅 업무가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았는데 고질적인 시스템 문제 때문에 10년, 20년이 가도 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턴 경험을 통해서, 기업의 필리핀 지사화 및 무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인턴 이후에 달라진 점 중 하나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후의 삶도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인턴 마지막 날 한국 직원들과의 송별회 사진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단체사진을 포함해서 사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마지막 날, 한 명씩 모두가 돌아가면서 사진을 다 찍었네요. 더불어 다들 저의 한국 귀국을 아쉬워해주시고, 사비를 들여서 회식 자리도 마련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013-여름학기 KOTRA해외인턴 후기

-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 : 석사과정 2기 김명미, 김진리



안녕하세요. 프놈펜 무역관에서 한 달간 인턴으로 근무했던 석사 2기 김명미, 김진리입니다.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사실 프놈펜 무역관에서 가장 걱정하였던 것이 '안전'이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온 인턴도 교통사고로 예상보다 일찍 귀국한 사례도 있었고,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온 인턴도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일찍 들어가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오토바이가 매우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좌우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근무했던 기간이 총선거간과 겹쳐 도시가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프놈펜 무역관에서 저희의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업무는 글로벌 윈도우란 현지시장정보 보고서와 투자정보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자료조사였습니다. 아직까지 캄보디아 시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없다 보니 직접 발로 뛰거나, 해외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오기 전 사전조사와는 달리 프놈펜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올 여름 한국은 매우 무더웠다고 하나 저희는 오히려 프놈펜에서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캄보디아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의사소통의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프놈펜에 오기 전 가졌던 편견과 달리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돌아오기 아쉬웠습니다. 이번 코트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세계를 넓게 바라볼 안목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회사 생활에 많이 부족했을 저희를 잘한다고 격려하며 믿고 맡겨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주신 경영컨설팅학과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학생 인터뷰



석사과정 4기 강민구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석사 4기 강민구 입니다. 저는 김유찬 교수님 지도하에 회계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입학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느껴지네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학업에 매진하겠습니다.

해외인턴 소감

2013년 하계방학 기간 동안 코트라 캄보디아 무역관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무역관에서 시장 현황 및 투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최빈국으로 아직까지 사회기반시설과 정보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개발이 덜 진행된 만큼 기회도 많습니다. 코트라와 연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새로운 해외시장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번이 마지막 학기로써 논문작성과 취업준비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두 가지 일로도 여느 때 못지 않게 바쁜 학기가 될듯합니다. 마지막 학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경영에서 소통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졸업생 및 선배님과의 대화에서 소통과 상호교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인생은 인간관계의 연속입니다. 물론 학생으로서 첫 번째 본분은 학업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소통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업의 문제나 연구실 스케줄의 이유로 쉽지는 않겠지만 학과 차원에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교류하며 전통 있는 대학원으로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재학생 인터뷰



석사과정 4기 이한웅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백동현 교수님 연구실에서 정부지원 사업 성과분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관련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영컨설팅학과 Global Business Consulting(GBC) 석사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인 이한웅입니다.

신입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폴타임 대학원분들 중에서 하고 싶은 연구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를 찾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파트타임으로 재학중인 분들과의 다양한 교류도 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모든 파트타임 원우들은 경험이 많으시고 배울 점이 많으시기에, 원우회 활동 대학원 수업 시간, 수업시간 전후로 여러 대화를 통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직간접적으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풀/파트 구분 없이 선배들과의 여러 소통을 통해 연구 분야 및 연구실 선정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기업마다 다르지만 일부 기업은 석사학위를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사 기간 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대학원 생활이 끝나지 않았지만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디 대학원 생활을 후회 없이 꼭 찬 대학원 생활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학기의 계획

군 제대 직후에 2012년 3월 폴타임으로 대학원에 입학한지 어느덧 3학기가 지났고 종합시험과 졸업논문만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종합시험, 졸업논문.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벅찬 한 학기가 될 것 같습지만, 한편으로는 취업 준비 등을 병행하며 바쁜 한 학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양대 경영컨설팅학과는 저에게 다양한 경험(OJT, 수업, 프로젝트, 해외인턴 등)과 제 인생을 돌아볼 기회(여러 원우들과의 대화와 수업시간 토론 등)를 주었고, 이는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인생의 방향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도교수님 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과 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더불어 늘 뒤에서 힘써주시는 지식서비스연구소 박사님과 연구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9월 행사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개강  | 3 | 4 | 5 | 6 | 7 |
| 8 | 9 ← 종합시험 접수기간 →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추석 연휴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종합시험  | 27 | 28 |
| 29 | 30 | | | | | |

[9월 2일] 경영컨설팅학과 개강

[9월 9일 ~ 11일] 종합시험 접수기간 (by 17:00)

[9월 18일 ~ 20일] 추석연휴

[9월 25일 ~ 26일] 종합시험 실시(예정)

